

동네방네



서울-광주방향 관문형폴리2

광주 관문 지키는 '무등의 빛' 첫 선

광주다움 담은 상징 조형물

광주의 관문인 톨게이트에 광주다움을 담은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다.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8일 오후 장성 남면에 있는 광주 톨게이트에서 상징 조형물 '무등의 빛'의 작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이용섭 시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건위원장, 김선정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상호 광주폴리시민협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징 조형물을 총괄 기획하고 설치한 강필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과보고, 이이남 작가의 작품 설명, 작품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광주시는 방문객들이 광주에 들어서면서 광주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술·건축적 요소를 갖춘 상징 조형물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작품 공모에 실시해 김민국 (주)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가 협업한 작품 '무등의 빛'을 상징 조형물로 확정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에 진행해 최근 마무리지었다.

무등산을 형상화한 '무등의 빛'은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비정형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광주톨게이트 상부에 가로 74m, 높이 8m 규모로 설치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다도해·유달산 조망 관광유람선 6월 취항

목포시 삼학도~평화광장 등 순회

을 체결했다.

'낭만 항구' 전남 목포 앞바다에 다도해와 유달산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유람선이 뜬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주)한국호남해운개발이 투입할 유람선은 길이 70m, 폭 11m, 960t으로 1층과 2층에 공연장과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3층에는 야외 행사장과 전망대가 있다.

유람선은 삼학도 선착장을 출항해 갖바위~평화광장~대불부두~목포신항만~현대삼호중공업~장좌도~목포대교~인어동상 등을 거쳐 삼학도로 돌아오는 1시30분 코스로, 주간 2회 야간 1회 등 하루 3회 운항될 계획이다.

(주)한국호남해운개발이 투입할 유람선은 길이 70m, 폭 11m, 960t으로 1층과 2층에 공연장과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3층에는 야외 행사장과 전망대가 있다.

유람선은 삼학도 선착장을 출항해 갖바위~평화광장~대불부두~목포신항만~현대삼호중공업~장좌도~목포대교~인어동상 등을 거쳐 삼학도로 돌아오는 1시30분 코스로, 주간 2회 야간 1회 등 하루 3회 운항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섬진강이 키운 명품 곡성멜론, 올해 첫 출하

전남 곡성의 명품 멜론을 조만간 식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멜론(주)공동선별장에서 지난 8일 울들어 첫 출하식이 열렸다. 첫 출하를 하게 된 곡성읍 태평리 김태봉씨 농가는 지난 2월 초 얼스계통 아이비 품종의 멜론을 보온과 난방시설을 갖춘 시설하우스 4동에 정식했다.

3월 중순 착과가 시작했고, 어느새 멜론이 튼실하게 자라 8kg단위 300박

스를 출하하게 됐다.

곡성멜론은 섬진강 일대의 맑고 깨끗한 환경, 큰 일교차,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이라는 최적의 환경에서 재배된다. 여기에 농가들의 정성이 더해져 명품멜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올해 첫 출하된 곡성 멜론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경영난 심각

이철우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해야"

(경북도지사)

경북도 증대본 회의서 지원 건의 일반진료 어려워 병원 손실 눈덩이 병원 수익 전년 대비 159억 손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에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직업자병원 등 5개의 병원·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해왔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갖춘 동국대경주병원도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6개의 병원·의료원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2월말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96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1460명의 의료인력을 투입해 139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들 병원·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일반진료를 중단하게 됐고 이 때문에 병원 수익이 급락해 전년 대비 159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일 열리고 있는 '코로나19 증대본'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지난 달 9일 1차 손실보상금 37억원이 지급된 이후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빠른 집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외래·입원 등 일반진료를 중단하다 보니 경영난이 심각해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상주

직업자 병원은 지난달 임금 70% 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손실보상금을 빨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실보상금 준비는 거의 끝났다"며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 병원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19 해결에 적극 협조했는데 이런 고충이 생겨선 안된다. 적극행정으로 전담병원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지정

송강 정철 등 대표적 시가문학 고장 소재원 등 문화유산 곳곳에 산재

가시문학의 보고(寶庫)이자 국가사적지 소재원 등을 품고 있는 전남 담양군이 인문학교육과 전통정원 특구로 지정됐다.

담양군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제 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양이 인문학 교육특구에서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 변경 지정됐다"고 밝혔다.

담양에는 면양정 송순, 송강 정철로 대표되는 시가문학과 국가 명승(사적지 304호)인 소재원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원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담양 시가문화촌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인문학교육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인문학에 생태와 자연을 의미하는 전통정원을 융합해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

문학 교육의 조화를 통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024년까지 1373억 원의 생산유발과 102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도 '산단중심 일자리 거점' 사업 선정

노후 산단 거점으로 제조업 혁신

전라남도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광양만권 산업단지들을 대개조하는 '산단중심의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단 중심의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을 거점으로 주변 산단을

연계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형 공모사업이다.

사업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스마트공장을 비롯 제조 혁신 기반구축,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산단생활권 재생, 인력양성 등이 해당된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과 울촌제1산단, 여수·광양항을 연계지역으로 묶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대개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내용은 주로 온실가스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저탄소 신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안전·환경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능형 산단 조성, 대기업 중심 화학·철강산업을 중소·중견기업의 정밀소재·부품 집적단지 등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Weather forecast for May 11th, including temperature (22~14°C), wind speed,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weather conditions in various regions like Yeosu, Gwangju, and Jeonju.